

“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 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신다면서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신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짓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뀔수록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자,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심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품위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백성은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1377호] 2013년 8월 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4 :1-11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King's Triumph over Temptations”	Pastor
* Hymn	320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교사 강아름주하나, 전경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버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라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승민(터키노동자), 훈쿠아 양,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움,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양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Th. D, D.D, D. D.

담임목사(안식)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섬김의 길 ”

■ 마 19:45

크리스천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춧돌이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라 함은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섬기며 산다는 의미는 무릎 꿇고 사는 삶도,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삶도 아닙니다. 섬기며 산다는 것은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의 일부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섬김의 자세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 내 시간, 내 몫을 후순위로 미루어야 가능합니다. 배려는 섬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는 왜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성장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중에 나한테 다 갚아야 한다며 강요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전 4:7).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이 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요 4:37-38).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려한 일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성숙도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2. 사도들의 삶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3:1-10).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소리 지르자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결코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거둔도록 배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말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죄인을 위해 한 말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꼽으려면 단연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30). 당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추앙을 받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메시야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는 증언과 함께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3. 스스로 종이 된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생전에 바울의 헌신을 보셨더라면 많은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19).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섬김의 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천상의 특권을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들은 자, 귀신들린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신 대가는 ‘십자가 처형’ 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는 죽을 터이니 너희는 살라” 함을 극대화시킨 분입니다.

맺는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려면 자신을 태양과 같이 높게 드러내야 하며, 소금이 되려면 자신을 낮은 곳까지 깊게 숨겨야 합니다. 빛은 영광을, 소금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같은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같이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삶을 사시므로 우리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헌신적인 희생이 없이는 빛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 상황의 삶의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금과 같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빛나게 해주실 터이니 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중석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4:3-4 인 도 자
 찬 송 19(44) 다 함 께
 기 도 장상국 집사
 성 경 시 10: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실제적 무신론자" ... 설 교 자
 * 찬 송 292(41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117: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1(시 34)... 다 함 께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93(44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사 29:9-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훈미한 영에 잠든 세대... 김철홍 목사
 * 찬 송 Hymn175(16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최복희 권사
 성 경 벧후 2: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말씀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정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박수강	윤주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정기당회 / 1일(주) 주일 찬양예배 후 가이오실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예배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이번주와 다음주는 추석연휴로 인해 의료상담이 없습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세례 신청 안내 / 세례·학습 교육 / 10.8(주) 오후 1시
 세례 문답 / 10.8(주) 오후 2시
 세례식 / 10.15 (주) 오후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 준비반(010-7743-3223)로 문의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1. 김철홍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S.T.M.)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전, 서울교회 협동목사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11명	264명	284명	1,459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24일	헌금	34,146,000	
"	특별예배비		1,000,000
"	말씀봉사비		21,540,000
"	찬양대사레비, 찬양운영비		19,610,000
"	교회학교교육비, 교회학교운영비		2,907,000
"	선 교 비		800,000
"	행 사 비		27,370
"	급 여		39,624,000
"	구 제 비		1,800,000
"	출 판 비		990,000
"	소모품비		332,430
"	통 신 비		1,466,060
"	차량유지비		870,080
"	세금과공과		766,890
"	복리후생비		223,650
"	수도광열비		2,240
"	환경유지비		479,800
"	수선유지비		1,052,700
"	식당운영비		1,422,440
"	합 계	34,146,000	94,914,660